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
제 1 독서 : 스바 2, 3 ; 3, 12-13
제 2 독서 : 1고린 1, 26-31
복 음 : 마태 5, 1-12a

숲정이

"하느님께서는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1고린1, 27).

강론

참된 행복

성태수 신부/신풍 천주교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을 위하여 어떤 고통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어간다. 그러나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더 크고 완전한 행복이 가능한 것일까. 또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왜 이다지도 빨리 지나가버리는 것일까. 우리가 바라는 참행복은 영원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참된 행복을 선언하고 계신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로마의 식민지하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대부분의 갈릴래아 사람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의 선언은 신선한 충격이었고, 복음이었다. 물질적인 번영과 성공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행복 선언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가. 솔직히 그분의 말씀은 비현실적이다. 어찌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하며, 온유한 사람(참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덧붙여 말씀하신다. 세상의 것으로만 행복의 기준을 삼은 우리에게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신다. 예수님은 현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셨던 것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참된 행복의 비결은 바로 하늘 나라, 곧 하느님께 있는 것이다. 하느님을 떠나서 참된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이 있고서야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신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살도록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잘 사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온갖 사리사욕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우리 마음이 흐려져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행복에로 인도하지 못한다. 우리 마음의 변화없이 참된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결국 참된 행복이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가야 한다.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된 행복이란 하느님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주일인 오늘 불행한 이웃들을 기억하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참된 행복에 초대되기를 기도하자.

참된 행복이란
하느님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다.

여 명

초록은 동색이 아니던가

한상갑(바오로)

＊ '농부증'이라는 직업병

우리나라 농민의 대다수가 '전신이 쑤기고, 숨이 차며, 밤에 소변이 잦고, 불면, 두통, 어지러움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은 농사일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를 일컬어 농부증(農夫症)이라고 부른다. 전문가들은 "농부증이 특정한 질병을 지칭하는 병명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나 임상적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직업병"이라고 말한다.

농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지가 오래이고, 농촌총각이 장가를 들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것이 못된다. 참으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것은 생명을 걸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일이다. 이는 "우리 농민의 82%가 농약중독을 경험했으며, 그 가운데 31%는 서둘러서 요양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국립보건원의 조사보고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근년에 와서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쌀시장 개방문제로 농민들은 더욱 곤경에 빠져 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모든 후보들은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만큼은 한목소리로 반대를 했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난 지금에 와서는 구렁이 담넘기 작전을 펴는 무리가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그것은 곧 민자당 보를 통한 "쌀 수입 개방문제나 핵 폐기물 처리장 문제 같은 골치 아픈 현안을 새정부에 부담으로 넘겨주지 않는 단안을 내려라."는 주장이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농민들의 처지를 보아서는 뛰다가 죽을 노릇임에 틀림없다. 농민들은 농부증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걸고 농사를 짓는데, 정말로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믿을 신(信)이라는 글자는 사람(人)의 말(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그를 믿고 신임(信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용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밑천이 된다. 우리가 신용이 살아서 숨쉬는 사회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정치인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따지려들지 않는 무력증에 빠져 있다. 정치인들이란 으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곧 국민들이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그래서 노예되기를 자처하는 바보놀음에 불과한 짓이라 하겠다. 한 사람의 인품을 저울질하면서도 책임성을 따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살림을 할 사람을 고르는데는 천치 같은 너그러움(?)을 보이는 짓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미 앞으로 몇 년간 나라살림을 맡아볼 국민의 대표들을 뽑았다. 어떠한 기준으로든 국민들의 선택은 끝났다. 그렇다고 한 번의 선택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전적인 위임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다. 이제는 국민의 여망에 얼마나 충실하게 정치를 하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주인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문민정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얼핏 보아서 그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조금만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체육관 선거를 마감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마무리되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뿌리를 따져보는 정권의 도덕성 시비까지 그만두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같은 무리였고, 그래서 그들을 두고 초록(草綠)은 동색(同色)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은행에 대해서 무책임한 말을 한 후보가 한때 곤욕을 치뤘다. 그래도 그는 잘못 말했다고 사과할 줄은 알았다. 그런데 ….

숲정이 산책

축! 6명의 사제서품

주님이 계시기에

가난한 예수를 찾아서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홈케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35－40).

인간은 누구나 늙어지고 힘없어지게 마련, 그러기에 세계 곳곳에는 사회복지기관이 있어 가난한 이들,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대로 복지제도가 구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이 소외된 채 최하의 생활을 근근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 부분에 발벗고 나서는 선의 사람들이 있어 감사로울 뿐이다.

1992년 6월6일 전주교구장의 승인을 얻어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본원－대전) 수녀들이 홈케어(가정방문실) 사도직을 하고자 전주에 진출하였다. 사실 처음 전주에서 시작할 때는 빈민자들을 위해 식당을 경영하려고 했으나 주교님의 권유에 따라 가정방문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 가정방문실의 목적은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영세민 환자들을 위해 직접 가정방문을 실시, 무료로 계속 치료해주면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자 하는데 있다.

전주에서의 초창기, 교동에 작은 빈 한옥집을 구입하여 축성한 후, 여러 은인들과 사제들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녀들의 이런 방문을 종교적인 강요로 알고 달갑지 않게 여기어 냉대를 하는 곳도 있었으나 차차 수녀들의 무상적인 사랑을 보면서 마음이 열리고 따스한 대화가 오가게 되었다. 현재 활동 구역은 전동·노송동·평화동·교동 지역의 6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하고 있다. 세 분의 수녀(박유리안젤라·오제인·김디오니시아)는 매일 오전9시부터 대상 가정을 찾아나서는데 보통 1일에 4가구 정도를 방문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고통중에 있는 영세민 이웃을 보살피며,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환자들을 위해 호스피스를 실시하고, 물리치료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해결해주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어 동분서주하게 된다. 시청, 동사무소와 연결하여 영세민 카드 발급을 주선해주기도 하고, 수술환자에게 병원을 알선해주며 취업도 알선해준다. 또한 임종자에게는 그 지역 본당에 연락해 장례를 돕게 한다.

참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의 부지를 위해 한끼 한끼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특히 자식이 버린 노인들, 부모가 있으면서도 고아가 된 어린이들, 소경, 불구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우한 이웃들이 우리 주위에서 숨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살아 있는 가난한 예수를 만나러 가는 수녀들은 병자와 함께 다닐 때 외에는 대부분 걸어서 또는 버스로 다닌다. 그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나의 안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시간을 내어 수녀들과 함께 가까운 산동네엘 갔다. 할머니(74세) 한 분이 5명의 손주들과 함께 사는 곳, 5명이 앉으니 발딛을 틈이 없다. 수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오시며 어서 오라고 두 손 꼭 잡으면서 웃으시는 할머니. 가난이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또 한 곳은 할머니 자매가 사는 곳. 중풍과 심장병으로 누워 계신 언니 할머니(81세)를 모시고 동생 할머니(77세)가 조용히 사신다. 좁은 방안의 십자가와 성모상이 유난히 돋보인다. 마치도 베들레헴 마굿간의 성스러움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호미 받은 것을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과 나누는 할머니의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문득 뇌리를 스친다.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없는 이들이 더 없는 이들을 도와준다"는 말이.

"이 일은 저희 몇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일입니다. 함께 동참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작은 중개자의 역할만을 할 따름입니다."라고 말하는 수녀님의 모습에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빛이 배어나옴을 본다.

감 1993년 전주교구 사제·부제서품식 사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전주교구 부제 6명이 새사제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하시어 이들이 우리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가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제서품식
- 부제서품식

일시－2월2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중앙 성당 주례－이병호 주교

■ 사제서품자 명단 및 첫미사 일정

송영진(모이세)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평화동 성당

권완성(사도요한) 12.27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조촌동 성당

김광태(야고보) 2.26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팔마 성당

고봉호(베드로) 6.27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수류 성당

장상원(안드레아) 11.30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고산 성당

김봉술(아오스딩) 8.28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상관 성당

■ 부제서품자 명단

이득재(바오로) 진안 성당

각종 가스렌지 시설, 신속 배달
성심가스
태 윤 선(라파엘)
황 해 숙(요한나)
신동 성당 앞
☎ (0653)857－5120~1

1993학년도 유치부
원아모집
호남웅변종합학원 252－7313
새호남웅변종합학원 253－1411
효자웅변종합학원 221－8331
원장 유 병 철(베드로)
원감 박 경 애(안젤라)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 한 중(요 한)
황 인 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제3회 사회복지주일 담화문

생활 방식을 바꾸어 기아를 극복하자

'참된 인간 발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뜻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교회도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인간이 참으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가에 항상 유의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제까지 인간 발전이라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을, 문화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정치제도의 발달과 부(富)를 골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경제제도의 발달을, 정신적으로는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빼놓을 수 없는 인간 발전의 조건들이며, 참된 인간 개발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들입니다.

그러나 인간 발전 즉 인간 개발의 주체와 주역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고 바로 인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라는 인간 발전이란 사람들이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써 죄와 불의에서 해방되어 전인적(全人的)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회칙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경제나 기술이나 정치 분야에 직접 작용하거나 물질로써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양심을 깨우쳐서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인간답게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58항). 인간의 전인적 개발은 곧 인간 양심의 개발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주일 복음에 나타난 산상수훈은 양심 개발의 방향이 되는 성서적 규범이 됩니다. 양심대로 산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난한 이요, 슬픔을 아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며,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또 참된 양심의 삶은 자비를 베푸는 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하느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인간 양심의 개발이 없이는 참된 인간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라 자기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자기 주위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부유한 사람들이 마음을 달리 먹고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서 굶주림이라는 인간 재난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돈으로 천원이면 아프리카 난민의 일주일 양식이 됩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에 따른 인간 발전이란 자기 혼자서나 자기 나라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 발전은 인류 전체의 총체적인 발전이라는 것이 현대 사상의 흐름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을 바꾸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줄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마태 5,2).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석희 주교

교 사 초 빙

- 과목 : 화학, 수학, 일반사회
- 구비서류 : 이력서,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호적등본, 자격증사본, 대학교전학년성적증명서.
- 제출처 : 화학-성심학교 서무과 수학, 일반사회-해성학교 서무과
- 제출마감 : 1993. 2. 6. 오후5시

무공해 천연세제 및 샴푸
늘 푸른 집 (전주 완주 대 리 점)
- 천연샘(주방세제)
- 샘이랑(세안·세발 등)
- 아기샘(유아용 비누)

전 경 자(베로니카)
☎86-2050
삐삐012-682-6543

알립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농민회에서 공급한 생수를 음용해오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급 생수가 지리산 보천광천탄산수로 바뀌었습니다.
☎(0652)85-4205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회장 송남수
지도신부 박병준

성심속셈학원
93년도 유치부 원아모집(5-7세)
국교부 모집(산수 및 전과목)
원장 문 영 구(바오로)
남고 후문
☎842-5889,54-1549

노 령 기 획
신용조합 행사용품, 각종 단체 행사 기념품, 각종 개업 답례품 및 판촉물 김 배 근(스테파노)
월드컵 사거리 ↔ 다가동 파출소
☎(0652)82-6224
FAX(0652)85-6224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사롱
전 광 원(마르코)
김 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4
(신혼 예식장 골목)
☎ 88-1902

양재·한복·홈패션
노 라 노 학 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옆
☎ 86-2715
93년 비진학 청소년 국비 무료수강생 모집

뿌리를 찾아서

팔마 성당

-신앙과 정을 접목시킬 줄 아는 본당-

군산시의 초입에 위치한 팔마 성당은 1969년 4월 1일 둔율동 성당에서 분가하여, 군산시 중동 274-78번지의 대지(1,262㎡)와 기와공장으로 쓰던 벽돌조의 건물(211.57㎡)을 매수하고 이 건물을 개수하여 성당과 사제관으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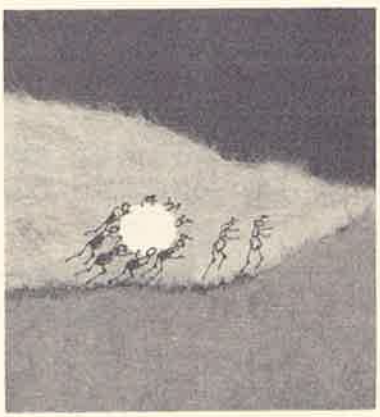
당시의 성당 명칭은 중동 성당이었는데 성당의 대지가 협소하고 위치로도 적당치가 않아 1976년 3월 본당 소재지를 이전키로 결정하여 당시의 본당 소재지인 중동의 대지와 건물을 둔율동 본당 소유인 경장동 463-4번지의 잡종지(1,652㎡)와 교환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 7월 성당 신축 기공식을, 이듬해 3월 1일 성당 축성식을 각각 거행하였는데, 연 건축면적 676.07㎡에 3,400여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 이때 성당 명칭도 팔마 성당으로 개칭하였고, 사목협의회와 제단체를 조직하는 등 다각도로 지역선교를 위한 발판을 다져나갔다. 피정, 연수회, 특강을 통한 신자 재교육, 레지오 마리애가 중심이 된 봉사활동과 신심활동을 심화시켜나가는 한편, 특히 성탄, 명절 때에는 제단체에서 생활필수품들을 장만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직접 방문했는데 그 대상은 이웃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나환자촌, 양로원, 행려자 등 이들 사랑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였다.

본당 설정 당시 군산시 죽성동 외 8개동과 3개 지역의 공소를 관할했는데 1979년 2월 오룡동 본당의 설정을 계기로 구역이 대폭 수정되었고, 88년에는 조촌동 성당의 분리로 인해 900여명의 신자가 분리되어나가 한때 본당이 썰렁한 느낌마저 없지 않았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목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였던 바, 현재 800세대에 2,100여명의 신자들이 20여개의 제단체와 22개 레지오팀의 구성원이 되어 내부적으로는 본당의 알찬 성장과 개개인의 신심앙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음선포를 위해 일로매진하고 있다. 신앙과 정을 접목시킬 줄 아는 본당,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차가움까지도 맨몸으로 얼싸안을 줄 아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팔마 성당의 멋이요 진실이 아닌가 한다. 현재 12대 김희남(베드로) 신부가 사목을 맡고 있다.

명상의 자리

새해에는

새해에는 온전히
당신께 바쳐지는 하루하루가
분수처럼 치솟아오르는 줄기찬 물기둥
무지개로 피어나는 기도이게 하소서
때묻은 마음 마른 풀로 흔들리는
황폐한 일상사의 한복판에서
매도되는 자신에 관용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 속죄양의 산 제물로
눈물로 회개하며 죄사함 받는
새잎 푸르른 구원이게 하소서



사랑의 빛, 소망의 빛
빛으로 중화된 우리 모두 하나되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
한몸 이루는 한형제 하나로
우애과 사랑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회
양심법 준수하는 하느님의 자녀답게
평강의 주 믿음으로
새생명 열매 맺는
한형제 되게 하소서

삼성 콘테이너
대표 신 득 호
박 명 자(루시아)
본사 : (02)523-0877~9
지점 : (0652)212-4336~7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 부 의 집
전주점 관통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 영 자(헬레나)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 윤경 (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속성 발모 · 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2496, 855-8653

한방 본초 농축 미래 건강식품
E. EXCEL
대리점 모집(사업에 뜻있으신 분)
전 광 원(마르코)
☎ (0652)74-7787

교구소식

❖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 오늘 각 본당에서 실시됩니다.

❖ 사제·부제서품자 선발 예식
· 때 : 2월1일(월) 오후7시
· 곳 : 전동 성당

❖ 사제·부제서품식
· 때 : 2월2일(화) 오전10시30분
· 곳 : 중앙 성당

❖ 새신부 첫미사
· 때 : 2월3일(수) 오전10시30분
· 곳 : 출신 본당

❖ 사목교서 연수
· 때 : 1월7일(월) 오전10시
· 곳 : 전동 성당
· 대상 : 레지오 꾸리아 간부

❖ 천호 피정의집 1일 피정
· 때 : 2월4일(목)
· 강사 : 범석규 신부
· 주제 : 교회의 참모습
· 회비 : 9,000원
· 신청·문의 : (0652)73-6600

· 때 : 2월7일
· 강사 : 박종근 신부
· 주제 : 기도와 성사 그리고 사랑
· 회비 : 9,000원
· 신청·문의 : (0652)73-6600

❖ 임복만 신부님 주소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00-1 삼호 APT 2동 501호
· 전화 : 231-2690

❖ 가톨릭 문우회 모임
· 때 : 2월6일(토) 오후4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젠모임
· 때 : 2월6일(토) 오후2시
· 곳 : 군산 개정간호대학
· 대상 : 일반인

· 때 : 2월7일 오후2시
· 곳 : 가톨릭센타
· 대상 : 국교생-일반인

❖ 제3차 성가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 때 : 2월8일(토) 14시-9일 16시
· 곳 : 나바위 피정의 집
· 강사 : 김정선 수녀 (대구교구 종교음악연구소)
· 신청·문의 : 가톨릭센타 안내실 85-0041

❖ 성모의 기사회
· 때 : 2월6일(토) 오전10시
· 곳 : 효자동 성당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 때 : 2월15일(월) 오후3시
· 곳 :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 제목 : 장화 신은 고양이
· 내용 : 아버지로부터 고양이 푸스를 상속받은 코린은 생전 처음 집을 떠나 먼 여행길에 오른다. 고양이 푸스가 사람의 환영으로 나타나 코린에게 장화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자….
· 회비 : 1,000원

● 성소모임

❖ 성바오로딸수도회
· 때 : 2월7일 오후2시
· 곳 : 성바오로 서원 (0652)252-3398

❖ 살레시오수녀회
· 때 : 2월7일 오후2시
· 곳 :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 성모승천봉헌자수녀회
· 때 : 2월7일 오후2시
· 곳 : 본원 (062)371-0172

■ 권해드리고 싶은 책 ■
· 하느님의 오두막집
J. 무엘/조안나/성바오로출판사
침울할 때 한조각의 미소와 함께 진솔하고 격의없이 다가오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대화체로 쓴 명상집.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 선조들의 환경관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 1950년대까지도 쓸데가 없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거의 없었다. 우리의 환경이 깨끗했던 이유는 우리의 선조들이 참으로 자연을 아꼈기 때문이다. 거의 범신론적인 생각으로 자연에 신성까지 부여했으며 '자연이란 것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자연의 일원으로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한다'고 믿어왔다.

'기회자 장삼십, 기분자 장오십'이란 말이 있다. 즉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분뇨를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를 맞았으며 소나무 한 그루만 베어도 곤장 100대의 체벌을 가해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히 다스렸다. 금년 한해도 조상들의 어진 환경관을 본받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히 할 줄 아는 환경의 파수꾼이 되자.

방송앰프 시공의 선두업체
인켈PA·비디오 촬영 전문
백 운 전 자
기술과 정성을 다하는 완벽한 방송 효과의 만족을 드립니다.
백정수(리노), 이순님(데레사)
전주 중앙 성당 뒤
☎(0652)252-0231

진선미 꽃집
각종 생화
신부 부케 전문
미지트 원목가구
중앙동 대리점
이 명 자(마리아)
범 덕 배(디 또)
전주백화점 옆
☎ 진선미 84-2628
미지트 84-8725

보석 감정, 디자인, 고급 시계
보석전문점 빛 돌
이 재 호(베 드 로)
구 정 삼(세실리아)
관통로 사거리 전일관광 옆
☎ 86-8750~1

조립식 건축의 모든 것!
내 집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유) 경 일 건 설
대표 김 종 진(스테파노)
김 해 선(레미지오)
☎ (0652)73-1611

장기·화재·운전자 보험
한국 자동차 보험 Co.
완주 삼례 대리점
대표 김 진 권(스테파노)
반 명 선(아네스)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920-9
☎ (0652)291-2265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사회복지주일(2차 헌금 있음)
1. 세실리아회 성가연습변경 : 매주 금요일 저녁미사 후. 고문－임옥경(바울라) 지휘자－한경희(가타리나) 2. 주의 봉헌 축일 : 2일 저녁미사 후(어머니미사 없음) 초봉헌 있음. 3. 레지오단원 사목교서연수 : 7일 전동 성당(각 Pr에서 1명씩 참석. 점심 및 교제 Cu에서 제공) 4. 사목회상임 : 5일. 저녁미사 후. 5. 병자 봉성체 : 5일, 사무실에 신청. 6. 모임 : ①성심회, 자모회(2일) ②반회장모임(4일, 전10시30) ③윤뜨레아(7일, 장엄미사 후) 7. 금주청소 : 중노1,2반. 차주청소－중노3,4반.

□ 지난주 봉헌금 : 1,111,440원 □ 교무금 : 1,698,9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 상 인

1.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 있습니다. : 오늘.
2. 초축성 : 2월2일 저녁미사 중.
3. 사제서품식 : 2월2일 오전10 : 30. 중앙 주교좌 성당.
4. 성체강복 : 2월4일 저녁미사 후.
5. 회합 : ①자모회－2월4일 오전10시.
②대건회－2월7일 공식미사 후.
③사목회－2월7일 저녁미사 후.

금주전례 : 최옥남. 독서－안철조씨 부부.
봉헌－지해룡씨 가족.
차주전례 : 조옥례. 독서－지해룡씨 부부.
봉헌－김헌덕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912,300원 □ 교무금 : 1,054,8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옥

※ 축！사제서품 : 2일(화) 전10 : 30분, 중앙. 많은기도와 격려바랍니다. 첫미사－3일(수) 전10 : 30분.
1. 성모회 : 공식미사 후. 2. 사목회 : 6일(토) 저녁미사 후. 3. 사회복지주일 : 오늘 2차 헌금. 4. 꾸리아 :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옮뜨레아 : 오늘 저녁. 6. 교무금 납부의 날 : 매월 첫주(다음주) 7. 봉헌초 축성 : 2일(화) 저녁미사 중. 8. 성서읽기 : 시편 101편～110편. 9. 금주청소 : 평화의 모후Pr. 10. 금주전례 : 해설－김영신. 독서①한동옥 ②오귀남. 봉헌－오철규, 하월봉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박영미. 독서①양주태 ②이석남.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11. 예비자 교리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 347,000원 □ 교무금 : 143,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웃

※ 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2차 헌금 있음.
※ 환영합니다. 이희자(엘리아)수녀님께서 1월27일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어려운 본당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1. 회의 : ①사목회－2월3일(수)저녁미사 후 ②자모회－2월3일(수)오전10시30분 ③반장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④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2. 모임 : ①윤뜨레아－2월10일(수) 오후7시30분.
3. 알림 : ①자모회 임원개편 : 회장－정명순(루시아) 부회장＝이금순(수산나) 총무－황순례(모니카) 서기－김남순(안나)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수고해주십시오. ②초 축성－2월2일(주의 봉헌 축일)저녁미사 중(93년도 제대초 봉헌바람) ③자원재활용 폐품수집－매주일 성당에 오시는 길에 재활용 폐품을 가지고 오십시오. 서학동 성당 청년회에서 수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788,650원 □ 교무금 : 55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사회복지주일.
1. 오늘 공식미사 후 : 요셉회, 사라회.
2. 오늘 2차 헌금 : 사회복지(아프리카 형제들을 위하여)
3. 직장인반 예비자 교리시작 : 2월4일(목) 저녁미사 후.
4. 초봉헌 :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5. 다음주 공식미사 후 : 꾸리아.
6. 2월2일 사제서품식 : 중앙 성당에서(특별한 관심, 기도부탁)

＊ 전동
사제관 본당81－0098 보좌82－7245 주임신부 김 봉 희
사무실84－3222 수녀원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 영 태

1. 금주 : ①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기아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형제와 생명의 빵을 나눕시다) ②차량축복식(공식미사 후)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2시)
2. 성가정회 : 2월1일 오전11시.
3. 주의 봉헌 축일 : 2일(화) 초봉헌(제대용, 가정용)
4. 서품식 : 2일 오전10시30분. 중앙성당.
5. 성체강복 및 조배 : 4일 오전10시.
6. 봉성체 : 5일 오후2시부터.
7. 삐에따회 : 6일 오전10시.
8. 차주 : ①윤뜨레야(공식미사 후) ②제속클라라 형제회(후1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2,112,4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강 삼 근

"축！사제서품" 송영진부제 2월2일 10시30분 중앙 성당.
1. 첫미사 : 송영진(모이세)신부 3일 10시30분 평화동 성당. 모든 신자분께서는 함께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시간, 성체강복 : 4일 저녁7시30분.
3. 주의 봉헌 주일 : 2일, 한해동안 쓰일 제대초와 가정초 축성.
4. L.M 간부 사목교서 연수 : 7일 전9시30분 전동.
5. 중·고 동계피정 : 22일～24일. 장소－동혜원. 회비－오천원.
6. 구역미사일정 : 4일－2구역2반 전10시30분, 3구역3반 후3시. 5일－4구역1,2,3반 전10시30분, 5구역2반 후3시, 3구역2반 저녁8시.
7. 유아세례 : 6일 후3시. 사무실에 미리 접수바랍니다.
8. 반회장 회의, 꾸리아 : 다음주로 연기. L.M 및 부녀회(월)

□ 지난주 봉헌금 : 1,246,440원 □ 교무금 : 1,71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 사회복지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1. 주의 봉헌 축일 : 2월2일(화) 초축성 및 초봉헌이 있습니다.
2. 구역장월례회의 : 2일(화) 오후8시.
3. 사목회 : 다음주일 오후7시. 박형식(다두) 223－6313.
4. 설문지를 제출해 주십시오.
5. 교적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전례 : 이완자. 독서·봉헌－구정삼, 이제호.
차주전례 : 정 걸. 독서·봉헌－윤영심, 유승열.

＊ 효자동
본당223－3824 사무실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223－3823 수녀원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희
사목회장 이 동 섭

※ 오늘은 연중 제4주일(사회복지주일 : 아프리카 난민을 위한 2차 헌금)
－모임안내－
1. 본당 옮뜨레아 총회 : 여성 40차 꾸리실료수료자 환영식도 있음(저녁미사 후)
2. 유아세례 : 오늘 오후4시. 3. 까리따스회 : 5일(금) 오후3시.
4. 환자봉성체 : 2일(화)10시부터. 5. 성모기사회 : 6일(토) 오전12 : 30
6. 구역봉사자모임 : 3일(수)오전10시
7. 안나요셉회 : 7일(다음주)공식미사 후. 8. 사목회 : 5일(금)오후8시. □ 지난주 봉헌금 : 1,231,360원 □ 교무금 : 1,841,500원
* 예비자입교식 : 오늘 공식미사 후 성당에서 있습니다.
* 미사안내 : 금주－모든 성인의 모후, 샛별의 모후.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모임안내 : ①요셉회, 반석회－공식미사 후 ②사목회－저녁미사 후 ③여성분과회－5일(금)10시미사 후. 2. 사회복지주일 : 오늘 2차 헌금이 있습니다. 3. 봉성체 : 4일(목) 오후2 : 00. 4. 여사무원을 채용합니다. * 꾸르실료수료자 탄생－강명선, 김귀순. * 차주모임－꾸리아, 빈첸시오회, 자모회, 성모회, 성심회. * 신축헌금봉헌액－1,020,000원
금주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유병환 ②박균자
봉헌안내－박천운 부부, 이수원 부부.
차주전례 : 해설－이인숙. 독서①김광년 ②김화자
봉헌안내－양형섭 부부, 강인성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407,420원 □ 교무금 : 1,848,000원